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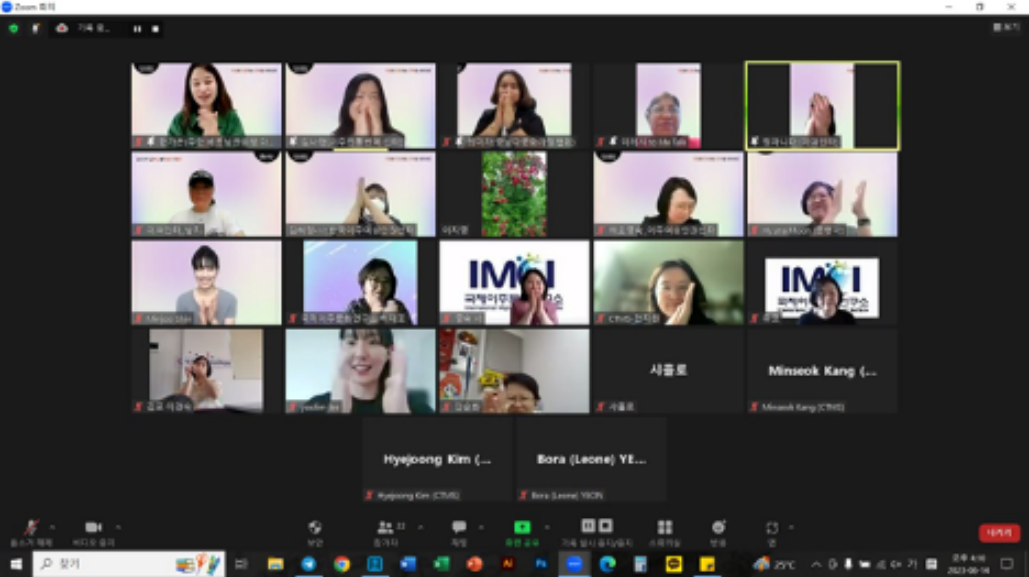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들,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

이 브리프는 본 센터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2022년도에 진행한 공동 프로젝트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현황 조사>와 <이주여성 활동가 라운드테이블>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작성되었다.

“국민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활동가 11)

‘국경’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표현은 이 사회가 ‘사람’과 ‘국민’을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을 언급한 이 이주여성 활동가의 한 마디는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사회 현실의 단면을 짚지만 굽게 요약해주고 있다. 활동가 11은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법과 제도들이 여전히 국민 중심의 틀 속에 갇혀 있기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 1) 센터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 진행한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라운드 테이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진 제공)

1.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자리를 잡은 지도 세월이 꽤 흘렀다.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도에는 전체 결혼 대비 1.2%였으나 2005년 13.5%로 증가했고, 현재는 소폭 감소되어 대략 11%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결혼인구 중 대략 10%를 차지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특히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을 일컫는 용어로 대표되는 ‘결혼이주’ 여성들은 그 세월을 지내며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이주여성,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충분히 ‘이주(민)’을 통합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 맞물려 최근까지도 비교적 취약한 존재로 조망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접근된 면이 강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정부나 민간의 지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주여성들은 수혜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이미지화 된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를 넘어서는 현실 속의 이주여성들이 존재한다. 아직은 대다수가 아닌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 소수의 이주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장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여성들은 한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가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절감하며 자신의 직장이나 활동의 장에서 그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9년 익산시장의 이주여성 자녀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이주여성 당사자 조직과 선주민 여성인권 단체들이 함께 해당 발언을 규탄하는 모임을 갖고 인권위에 진정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것을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2>.

이 브리프는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들을 찾아다니며



<사진 2> 익산시장 발언을 규탄하는 익산시장 앞 기자회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진 제공)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자료다. 이 여성들은 서두에서 인용한 활동가 11을 비롯해 모두 한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 다양한 맥락과 과정을 거쳐 한국에 정착해 이제는 한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민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이 아닌 존재처럼 대우받던 시절의 본인과 또 여전히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동료 이주민을 만나고 그들과 상담을 하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조모임 ‘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과거를 바꿔내고 현재를 가능성으로 만들어 한국사회가 이주민과 더 통합되는 미래로 뻗어 나가길 바라며 이주민 활동가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다.

2. 무엇을 하고 있는,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인가?

이주 배경의 사람들에게 한국사회에서는 흔히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묻는다. 이를 묻기 전에 그 사람이 국적을 취득했는지 또는 영주권 자격을 갖고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미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그 사람의 ‘출신’지, 즉 ‘이주’의 배경 장소를 궁금하게 여긴다. 이 브리프는 그 질문과 답변

이후에 진행되는 더 중요한 질문, 즉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브리프에는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스리랑카를 이주 배경으로 하고 있는 12명의 여성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여성들의 출신국가나 사는 지역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이 현재 활동하는 있는 분야로 생각되어 <표 1> 간략 프로파일은 주요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경상권, 충청권 등이며, 연령대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다양하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한국사회와는 다르게 12명 모두 자녀가 있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 한국에 입국해 정착한 시기는 1995년부터 2010년도로, 거의 모두 대략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30년 가까이 거주 중인 경우도 있다.

대부분 통번역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이주 기관이나 센터에서 상담 역할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영업자, 계약직 노동자, 공무원, 사회적 기업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더불어 각 국가별 자조모임이나 협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표 1>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간략 프로파일

기호	출신국	입국년도	활동지역	주요 활동 분야
활동가 1	중국	2002	서울	이주여성 당사자 모임 전국 연합 조직 운영
활동가 2	몽골	2007	서울	이주여성 협회 운영, 이중언어 다문화강사
활동가 3	베트남	2006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활동가 4	베트남	2005	서울	어린이집 조리사, 베트남 여성 모임
활동가 5	베트남	2005	인천	이주민 상담 지원 활동
활동가 6	스리랑카	2001	서울	이주여성 당사자 조직 및 사회적 기업 운영
활동가 7	중국	1996	대구	이주여성 통번역 지원 활동
활동가 8	중국	2004	서울	기관 소속 통번역사
활동가 9	태국	2007	서울	프리랜서 통번역 지원 활동
활동가 10	태국	2006	대구	프리랜서 통번역 활동, 자조모임 운영
활동가 11	베트남	1995	부산	기관 소속 통역 및 상담 지원
활동가 12	중국	2001	충청도	이주여성 협회 활동, 유권자 연맹 운영

여성들이 들려주는 활동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다. 10명 남짓한 이 여성들의 활약은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있고, 그야말로 한국사회 곳곳과 연결되어 있다.

“시청 교류협력과에서 아시아권 도시 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가 하는 일은 내빈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통번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통번역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활동가 3)

“여성총연맹에서 10년째, 11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은 서울

외국인대표자회의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 자조 모임으로 시작했거든요 목적은.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가는 거예요.

[...] 또 한동안 대구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마스크도 그때는 찾기가 힘들었고, 그때는 우리가 또

이제 대서관하고 [협력해서] 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마스크를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2)

이주여성이 “사회적 약자이자 권력의 약자라고 생각”되었죠. 기회의 평등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제도 안에 들어가서 바꾸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비례대표로 지원했습니다.

(활동가 12)

“병원 통역을 많이 했죠. [...] 종합병원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는과는 산부인과 많이 가고. 산부인과하고 정신과도 있고요. 그리고 내과가 많고. ‘성형외과’도 많은데 점점 안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경찰[과 동행하기도 하고], 검찰청, 법원 통역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와 같이 함께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10)

“태국 쿠데타 이후에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 많이 했는데 [...] 법무법원에서 난민 신청하는 거 통번역 지원 [했고] 그리고 진술서 쓰기만 아니라 진술서 쓰고 나서 동행,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같이” 가서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9)

“[이주여성]이 가장 해결 못하는 문제가 경제죠. 경제와 집안에서의 자립, 이 두 개가 거의 없어요. 그 두 개를 우리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 이제는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어요.”

(활동가 6)

3.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한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활동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분은 없어 보였다. 한국사회에 도착해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던 초기에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활동가 11, 활동가 6)고 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나 기회, 어떤 사건 등을 통해 한국사회 속에서 서서히 ‘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벗어나 타인과 관계 맺고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변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 일자리를 구하려다 시작된 활동?

“한국에 와서 제 능력이 반도 아니고, 70%가 깎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언어[를] 못하니까 처음부터 대기업 회사에서도 거절당하고.”
(활동가 9)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된 활동가 9는 언어가 안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시에 나이 차별도 겪었다고 했다. 대사관에도 이력서를 보냈는데, 30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을 하던 시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내가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니 뭐라도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을 즈음 이주여성 관련 센터에서 ‘자원활동가’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원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언어도 배울 겸 뭐라도 해보자고 시작한 통번역 활동이 지금은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주는 활동이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활동가 2는 임신을 하고 나서 “너무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임신했을 때 저한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라 하며, 집에만 있다가는 우울증이 다시 도질 것 같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잠시 친정 엄마가 아이를 돌봐 주러 와 계신

사이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커서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된 언니가 교육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어서 교육을 듣고, 언어도 배우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국에 와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가장 처음의 난관은 ‘언어’의 문제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듯하며, 상당히 많은 이주민들이 그 경로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또다른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이주여성의 노력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열심히 ‘독학을 해서 한글을 배웠다’(활동가 3)는 이야기나 주변 사람들의 제안으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 열심히 하려는 의지에 더해 주변 상황도 잘 뒷받침되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사회가 한국어를 습득할 기관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그 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이나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해주는 이야기들이다.

이 계기가 되었다. 분노는 나의 힘?

“[20]14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때 추모식을 할 때 [누가] 사망했다, 몇 명 사망했다. 그 자료가 눈 앞에 보이잖아요. 그 때, ‘아, 우리가 진짜 개미보다 못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인권, 정말 이주민 인권! 필요하다.”
(활동가 8)

활동가 8이 언급한 추모식은 2014년 12월 30일 서울시청 앞 덕수궁 광장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추모행사다. 그 해에만 억울하게 사망한 이주여성이 8명에 달했고, 그 중 5명이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였다. 활동가 8은 한 추모식 참석자의 “우리가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아, 너무 분한 거예요.”라며 분한 감정과 더불어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다문화’라는 말에 대해 그 “‘문화’가 문화 활동만 아니고 복지, 그리고 인권도 같이 가야 한다. 그 때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라고 하면서, ‘다문화’에 인권 활동이 포함되어야 자신의 분노를 삭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활동가 6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주민이라는 문제로 조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아,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차별은 아이의 탄생과 더불어 ‘아이의 이름이 너무 길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국 시스템에 출생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등록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출입국(사무소), 법무부, 여성가족부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가면서 싸움을 시작했다고 한다. 4년 여의 긴 싸움 끝에 시스템 문제를

알리게 되고, 이를 계기로 “나랑 비슷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랑 내 문제는 똑같고, 그러면 우리의 소리를 우리가 내지 않으면 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로부터 시작해, 한국사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은 결국 이 사회에서 ‘나만 잘산다’는 것이 가능하려면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연대의 마음과 연결되어 가는 것일 것이다.

3) “저도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도 많고, 거기서 아이들의 인권 문제도 많이 있었고, [...] 본국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말하기가 더 쉬우니까, 통역하면서 [...] 그 분들 도와준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도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좀 안쓰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활동가 7)



(사진3) 2014년 이주여성 추모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진 제공)

활동가 7은 통역을 하고,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을 전해 듣고, 새롭게 이주민,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문제들을 접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겪은 일들을 떠올리며 일종의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서로의 아픔의 간극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느끼면서, 새삼 더 도움을 주고, 더 협조하고, 사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쌓이게 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활동가 10은 자조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게 된 계기가 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태국, 외국인한테 춤추는 거,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전통춤 같이 배우면서 했는데,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연히 출신국과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느라 모이게 되고,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다가,

“아,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많이 고민했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많이 도와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 어디서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주고 했어요.”
(활동가 10)

동병상련에 그치지 않고, 아픔을 느끼는 혹은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조모임’을 만들고, 서로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모임을 강화하면서 모임 밖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 지원하는 ‘뭔가를 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수많은 여자들한테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도와줄 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여성이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모아 놓고 도와주기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활동가 2)

활동가 2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런 일을 “내가 해야지 안 그러면 누가 해요?”라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우리가 되는’ 모임을 만들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4. 활동하면서 느끼는 한계

이주민을 지켜주지 않고 차별하는 한국사회에서 병원을 다니며, 법원을 다니며 비슷한 처지의 이주민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활동은 의미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을 안겨줄 때가 많지만, 활동가로서의 삶은 녹녹치 않을 것이다. 활동가로서 자조모임을 이끌고 이주 동료들을 지원하며 사는 삶이 때로 지칠 때가 있는지를 물었다.

2) 상담이나 개별 활동으로 인한 고충

1) “빛이 그렇게 쌓여요.”

활동가 8은 코로나 시기부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알바하고 있어요. [웃음].” 개인 생계도 생계지만, 자조 모임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돈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무실이 있으니까 달달이 100 얼마는 나가야 되니까, 월세도 나가야 되니까, 관리비 등 여러가지 나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되는 거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작년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회원들로부터 ‘평생’회비로 5천원만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임을 위한 비용은 활동가 8이 언어 강사를 하면서 버는 것으로 충당해오다가, 코로나 시기 동안 돈을 벌 수 없게 되면서 빛이 쌓이게 되어, 자신의 생활비를 떼어 모임 관리비용을 충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변으로부터의 후원을 늘리는 등 다른 재정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활동가 8은 “제가 마음이 부자예요.”라고 말하며, 현실은 빚덩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활동가의 삶의 편린을 들려주었다.

활동가 2는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사람들에게. 진짜 안타깝고 그런 분인데, 끝까지 도와주지 못하는, 제 힘이 안 됐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픈 환자들, [...] 특히 아이들이나 그럴 때, 되게. 그때마다 제가 후원을 하고 막 그런 건 어렵잖아요. 제 생활도 있고, 그리고 다 제가 들어주기가, 너무,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한없이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론 그럴 수 없는 재정적 한계를 어려움의 하나로 꼽았다.

“쉼터에 입소하면 쉼터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 밥도 사주고 진짜 예전에 속옷도 사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지원을 받다가 지원 다 받았다고 연락을 딱 끊는게 솔직히 저는 좀 섭섭했거든요.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고, 언니 동생처럼 지낼 수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가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되더라고요. 이분들도 나를 만나기 솔직히 쫓겨올 거 아니예요. 자기 과거를 아는 것도 좀 신경 쓰일 거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무덤덤해졌고.”

(활동가 7)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너무 활동이 많아 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하나씩 접자’ 이렇게 하는데, 접자고 생각하면 맨날 일이 더 들어오고, 또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팔자네.’”

(활동가 2)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또 오래 일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는 것도 있고, [...] 지금까지도 솔직히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 솔직히 맨날 내가 해서 나중에 받는 거는 나 혼자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까지 안 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고 차별 당하는 거 밖에 없으니까, [...] 힘이 조금 딸리긴 해요.”

자조모임을 만들고 통번역일을 하고 상담을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직업’이 아닌 경우에, 혹은 직업이라고 해도 그 직업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마음을 쓰는 경우, 사람들은 종종 보답 없는 일의 의미를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간다. 이주여성 활동가들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그러나 ‘나까지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겪을 부당함과 차별을 생각하면서, 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보다 내가 도움 준 것을 기억하기로 하면서, 이 여성들은 다시 힘을 내고, 활동의 힘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3) 활동에 대한 평가나 의미가 갖는 무게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이제 통역을 잘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이에요. 이거를 정말, 내가 어떻게 통역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인생이].”
(활동가 10)

“인정이죠. 아직도 우리가 10년 동안 해온 것,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왔잖아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 ‘애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 외국인을 위한’ 그 인정이 멈춰서 ‘이 정도밖에 안 돼?’ ‘10년이나 했는데?’ 작년에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거 밖에 안돼’라고 말하나? [...]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활동가 6)

누군가를 돕고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는 것은 결과가 눈에 보이게 잘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큰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활동가 10은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지원하는 통번역 활동이 특히 법정이나 경찰서 등에서 진행될 때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로서의 활동이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활동가 10은 한국사회가 이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도록 별다른 지원을 하지도 않은 채 결과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하며 평가하는 현실의 문제를 큰 어려움의 하나로 토로한다. 이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주민 활동가들이 이주민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일상의 차별에 맞서 활동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그런 활동에 귀기울이고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 대한 중요한 일침과도 같다.

5. 그럼에도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힘!

“이제 제가 사회 구성원인데, 한국사회에서도 한국 사회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많이 알아야 한국사회도 변하고, 우리도 서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활동가 2)

“부끄럽고 내가 왜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나? 근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 [...] 먼저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활동가 10)



(사진 4)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앞 익산시장 발언 규탄 기자회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진 제공)

“통역을 하면서 저도 새롭게 배우는 게 있잖아요.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어떤 때는 말이 안되는 법이나 제도 때문에 충격도 받지만, 그 충격이 또 일을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 [같아요].”

(활동가 11)

“결혼이민자[와 상담하며] 그 사람들의 가족을 둘러싼 문제를 들여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 내가,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나 같은, 지금 겪고 있는 친구를 보면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 나만 그 친구한테 도움주는 거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의지도 하고 그런 거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받고, 진짜로.”

(활동가 3)

활동가들은 활동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힘든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준다는 역설 아닌 역설을 토로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근데 갈수록 포기하고 싶어져요. 힘드니까.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 주변 친한 회원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여태까지 고생하고 만들었는데 그냥 버리면 아쉽잖아.’”

(활동가 8)

지금까지 해온 고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며, 서로 들려주는 이야기와 격려하는 목소리들도 아직은 그들끼리의 몫이다. 그래서 활동가 8의 말은 더 마음 아프게 와 닿는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정말 억울한 거, 아니면 그 슬픈 거, 그 서운한 거.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표정이 뭐 우리가 다 느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이 항상, ‘이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주민들의 설움, 고충, 억울함을 한국사회는 얼마나 귀기울여 듣고 있을까? 얼마나 공감하며 얼마나 알아주고 있을까?

“성공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저의 삶을 보고 ‘아, 이렇게 살 수 있다.’ 저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수익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 특히 같은 나라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제가 보람을 느껴요.”
(활동가 9)

“나는 남을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나를 위한, 외국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비슷한, 공감하는 사람들이 같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 낯선 땅에서도 그렇게 낯설지 않게, 뭔가 자신감 있게 해서 ‘우리가 해냈다!’ 했을 때 완전 기분이 좋죠. 그때 보람이 생기죠.”
(활동가 6)

이 여성들의 이야기에서는 한국사회가 알아주거나 맡거나 이들의 활동이 ‘나를 위한,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활동가라는 정체성은 누가 알아주길 기대해서, 언젠가는 보상을 받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익히 체험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한다고 떠벌리지 않았다. ‘스스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게 하지만 그 활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보람을 느끼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보람’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6. 나가며 : 한국사회가 변해야 한다!

“아, 묻고 싶다, 한국 사회에, 진짜로. ‘나 언제까지 차별받아야 하니?’ 이제 그만받고 싶다, 차별!”
(활동가 10)

‘언제까지?’라는 이 물음에 한국사회는 뭐라 답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이 여성들의 활동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활동이 이제는 조금 더 한국사회에 울림이 있기를, 한국사회가 이 여성들의 활동을 조금은 더 귀기울여 듣고 그에 반응하며 변화하기를 희망하며 이 여성들에게 한국사회에 바라는 제안 몇가지를 물었다.

“솔직히 일반 한국여성들은 헬스도 다니고 꽃꽂이도 하고 [문화센터에] 엄청 반이 많잖아요. 뭐 노래도 부르고 노래 교실도 있고, 뭐도 하고, 수영도 가고, 근데 이주여성들은 [...] 쉽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주류사회하고 융합되지 못하는 거죠. [...] 이주여성 정치학교 하나 만들면 안돼나? [...] 어차피 우리보다 못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그쵸?”
(활동가 8)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죠.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정치 참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활동가 2)

“[경기도 지역에는] 다문화 전문 상담 기관이 별로 없어요. 있더라도 너무 멀리 있어요. 상담 못 받는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활동가 3)

“출입국 직원들은 종종 우리가 뭔가를 물으면 반말을
하거나 호통을 칠 때도 있어요.”
(활동가 12)

이 여성들은 여전히 부족한 한국사회의 면면들, 일상 생활 속의 내국인/이주민 차별과 같은 미시적 문제부터 거시적 차원의 ‘정치’ 영역에서의 문제까지 아울러 지적했다. 법과 제도들이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음도 강조했다(활동가 10, 활동가 11). 이주여성들은 그런 차별의 세계 안에서도 하나씩 변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반말에 대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주민들에게도 ‘물어볼 권리’가 있음을 ‘또박또박’ 강조했다, 인터넷에도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법무부로부터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고, 이후에는 차별적인 단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전화도 받고 있”다(활동가 12)고 했다.

하나부터 시작하며 더디기는 하지만,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열정이 모여 하나씩 변화들이 --아직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혹은 변화가 있는지조차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목소리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느껴진다. 당사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어느덧 시작되어 이제는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변함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예요.
저를 같은 국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까지 해야죠.”
(활동가 6)

우리는 국경을 단위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을 더하는 세상에 아직 살고 있다. 국민이 아니면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듯한 법과 제도가 자리하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아니라는 차별을 받고 있는 ‘국민’인 사람도 많다. 차별 없는 세상, 누구도 어떤 근거와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오늘도 힘을 내며, 변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는 12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소개했다. 이들의 이야기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되길, 이 브리프가 그 주춧돌에 힘을 보태는 작은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